



톡톡

# 부산체육

May 2020 VOL. 03

## 사람과 사람 ①

“평형 2관왕,  
수영의 매력  
평생 느끼고  
싶어요!”

부산체육고등학교 2학년  
이예나 선수



## 스포츠 센터 info

부산 시민  
건강지킴이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다!

부산국민체육센터



## 부산체육의 발자취

남과 북이 하나 된  
평화의 축제,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 스포츠 뉴스

코로나19 특별성금  
모금 전달식 개최



## 교육 톡 - 뉴스포츠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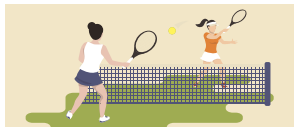
01

순발력과 지구력,  
민첩성 요구되는 프리테니스



02

탁구의 민첩함과 테니스의  
역동성 동시 즐겨, 소프트테니스



03

민첩성 조정능력 증가에  
효과적, 스피드민턴



## 스포츠 톡 - 집콕운동

코로나19  
물리치는 집콕운동.  
모두 함께해요!





## 사람과 사람 ①



# “평형 2관왕, 수영의 매력 평생 느끼고 싶어요!”



부산체육고등학교 2학년 이예나 선수

4살 때부터 시작한 수영, 함께 시작한 언니는 중도에 그만뒀지만 부산체육고등학교 2학년 이예나 선수는 지금도 물살을 가르느 중이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물이 좋았고 수영이 재밌었다. 살갓에 닿는 물결의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까.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기분, 그래서 그녀의 수영하는 몸짓은 마치 한 마리의 물고기가 유영하듯 그렇게 매끄럽고 돋보인 걸까. 2019년 100회 전국체육대회 평형 50m, 100m에서 금메달을 따 2관왕에 오른 이예나 선수, 그녀가 들려주는 수영의 매력은 오묘하고 근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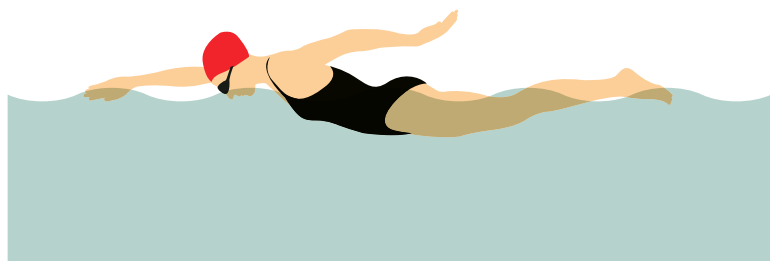
### 인생의 8할이 된 수영, 물 타는 감각 탁월해

쭉쭉 뻗은 얇은 팔다리, 가녀린 소녀가 걸어온다. 수영선수라고 해서 짝 벌어진 어깨에 탄력 넘치는 몸매를 떠올렸는데 예상이 빗나갔다. 수영장에만 들어서면 물 만난 고기처럼 물결을 제대로 탄다는 이예나 선수다.

“아주 어릴 때 수영을 시작했지만 돋보이는 재능은 없었어요. 매일 수영을 다녔는데, 종일 내내 그 시간만 기다렸던 거 같아요. 엄마한테 수영장에 가자고 즐겼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같이 수영을 하던 언니는 일찌감치 관뒀고 저만 수영선수의 길을 택했죠. 부모님과 함께 살던 경기도를 떠나 낯선 도시, 부산으로 내려와 부산체육고등학교에 다니는 걸 보면 수영은 제 인생에서 8할의 의미가 있어요.”

학창시절 대회에 나갈 때마다 유독 부산 출신 수영선수들의 활약상을 눈에 띄었고 큰 고민 없이 부산체육고등학교로 마음을 정했던 이 선수, 한창 꾸미고 싶을 예쁜 나이에 수영선수의 길을 간다는 게 때론 지치지 않았는지 묻자 씩 웃는다.

“누가 시킨다고 수영선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큰 슬럼프도 없었고요. 다만 발목 부상으로 두 번이나 수술을 했고 타고 나갈 체력이 약한 터라 훈련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때가 속상해요. 서성식 감독님에게 죄송하고요. 살을 찌우려고 안 해 본 게 없었어요. 자기 직전에 분유도 먹어보고 유명한 한약도 먹어봤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 수영에서 찾은 진짜 행복, 평생 이어갈 수 있길

몸이 약한 편이라 매 훈련 시간을 채우진 못하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서성식 감독은 이예나 선수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봐왔다.

“이 선수의 주된 종목은 평형인데 힘이 아니라 기능으로 수영을 한다고 할까. 쉽게 말하면 다른 수영선수들에 비해 물을 잘 타는 타고난 감각이 있어요. 수영하는 동작도 굳더더기 없이 깔끔하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원래 지난 4월에 있어야 할 국가대표 선발전도 예정 없이 미뤄진 상황인데 좀 더 자신의 기량을 다져야만 해요. 국가대표 선발은 쉽지 않아요.”

경기를 앞두고 몸을 푸느라 바쁜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이 선수는 긴장된 몸을 유지하다가 경기 직전에 살짝 풀어준다. 긴장감을 높여야만 기록이 잘 나온다는 걸 숭한 경기 경험으로 체득한 이예나 선수,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지금껏 해온 대로 훈련에 임할 계획이다. ‘경기를 즐기는 수영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외부 환경에 압도되거나 휘둘리지 않고 4살 때 물속에서 ‘까르르’ 천진난만하게 웃던 그날처럼 평생 수영의 매력을 느끼는 행복한 선수이고 싶다.



## 스포츠 센터 info



# 부산 시민 건강지킴이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다!

부산국민체육센터



2002년 11월 개관, 18년 세월만큼이나 건물이나 시설은 노후했지만 매년 관리를 잘해온 터라 외관이나 내부가 깔끔했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스포츠 7330 운동실천을 목표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생활을 위해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민 건강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이다. 인근에 구덕운동장과 구덕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이 근접한 부산국민체육센터를 찾았다.

### 기본부터 충실할 것! 이용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부산국민체육센터 하루 이용자 수는 1,500명 정도, 가입한 회원 수는 4천 명이다. 일반직 30명, 파트타임 47명 직원들이 근무 중인

부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일 인기 많은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애용하는 아쿠아로빅과 에어로빅. 총 3층으로 수영장뿐 아니라 실내 농구코트, 댄스실, 헬스장, 요가실, 탁구장 등 두루두루 갖춘 이곳은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4개 센터 가운데 역사가 제일 오래되었지만 가장 많은 회원 수를 자랑한다.

부산국민체육센터만의 특징은 꿈나무체능단이 있다는 점이다. 5세부터 7세까지 80여 명 정도의 원아를 받아 교육과정을 갖춰 보살피는데 수영과 태권도, 발레, 국악, 바둑, 인성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돋보인다. 수영 수업만 해도 일주일에 세 번이다. 7세가 되면 웬만한 영법을 다 익힌 시점, 야무지게 접영을 하는 모습은 감직하다 못해 탄성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교통이 편리한 편이에요. 서구, 사하구, 사상구, 중구 등에서 주로 오시는데 셔틀버스도 3대가 하루에 7회 정도 운영해요. 일반 체육센터에 비해 반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용 가능해 어르신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죠. 이른 아침 운동을 한 뒤에 삼삼오오 모여 사랑방처럼 이야기꽃을 피우거나 센터 건물 주변에 우거진 나무 밑에서 삼겹살도 구워 드시고 이곳을 아지트 삼아 애용하는 걸 보면 제 마음도 뿌듯하답니다.”

박경배 관장은 늘 회원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가급적 사소한 건의사항도 들어주려고 애썼다.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센터 시설 개선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왔다.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던 냉난방 시설도 교체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각 교실마다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한 게 작년이다. 부산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물은 지하수로 하루 100여 톤을 물을 새로 주입해 정화시킨다. 한 달에 한 번 부산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 수질 검사를 철저히 받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문을 닫았을 때도 서구보건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방역을 시행하는 등 자체 소독에 철저했다.

### 예전처럼 시골벽적 회원들의 사랑터가 됐으면

“2018년 12월쯤이었어요. 한 차량 운전자가 병원인 줄 알고 급하게 이곳으로 오셨는데 심장이 안 좋으셨나 봐요. 차를 세우자마자 바로

쓰러지셨거든요. 한 직원이 재빨리 심장제세동기를 이용해 심정지를 막을 수 있었죠. 그분 아드님이 부산광역시 게시판에 감사 글을 올렸고 해당 직원은 서부청장에게서 자랑스러운 서부인상을 받았답니다.”

늘 회원들의 입장이 되어 보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 온 국민체육센터 임직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돼 예전처럼 시골벽적인 센터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회원들 맞을 준비를 마쳤다.



스포츠 톡 - 집콕운동



# 코로나19 물리치는 집콕운동, 모두 함께해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일상성을 위협받고 있지만 이렇게 코로나19에게 질 수 없다!  
코로나로 야외활동 및 스포츠를 못하는 대신 '집콕운동'을 즐겨보자. 건강도 지키고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1석2조의 성과를 얻을 것이다.



SPORTS

## 01

### 집에서 건강을 지켜요 '집콕운동'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야외 체육 활동이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 '집콕운동으로 나와 우리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요'라는 표어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은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방법과 운동 수칙을 안내하고, 전문가의 운동 상담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집콕운동'을 주제로 한 영상 공모전도 함께 진행하며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SPORTS

## 02

### 유튜브 통해 운동 소개 '국민 참여 독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야외 체육 활동이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 '집콕운동으로 나와 우리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요'라는 표어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은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방법과 운동 수칙을 안내하고, 전문가의 운동 상담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집콕운동'을 주제로 한 영상 공모전도 함께 진행하며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SPORTS

## 03

### 맨손 운동부터 소도구 이용 운동까지 맞는 운동 찾기

문체부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방법으로 '코로나19 극복! 실내건강운동은 이렇게!'를 소개했다. 영상 속에는 국민체육진흥공간이 운영하는 체력인증센터 운동처방사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동작들을 하나하나 소개한다. 제자리 걷기를 시작으로 스쿼트-런지-팔굽혀펴기-브릿지 등 9가지 동작으로 구성돼 있는 운동은 약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운동들 외에 자신에게 맞는 다른 운동을 찾고 싶다면 국민체력100 인터넷 사이트 '온라인 운동상담'을 통해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다. 국민체력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집에서 가까운 체력인증센터를 지정해 신청하면 운동처방사가 온라인으로 맞춤형 운동을 상담해준다. 아무런 도구가 필요하지 않는 맨손 운동부터 소도구를 이용한 운동까지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운동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실내운동으로는 스트레칭, 윗몸일으키기, 스쿼트, 플랭크, 런지 등이 있으며 덤벨이나 케틀벨 등을 이용한 근력 운동법도 다양하다. 요즘 같이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시기에 집에서 누워서만 보내기보다 실내운동을 통해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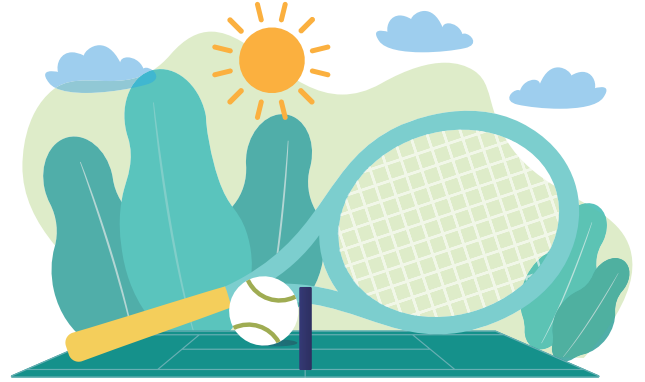


## 교육 특 - 뉴스포츠의 이해



# 예약 없이 쉽게 접근, 뉴스포츠의 매력 속으로

바쁘고 시간이 부족한 현대사회에서 정서적, 신체적 스트레스는 사람들을 쉽게 지치게 한다. 이런 스트레스는 스포츠를 통해 해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가볍고 쉽게 즐길 수 있는 뉴스포츠를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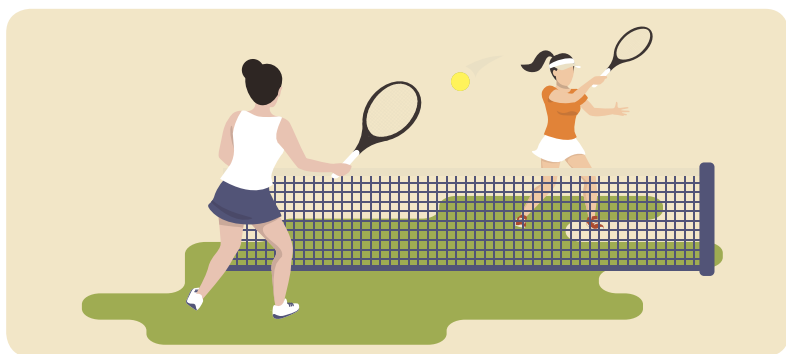


### 01 순발력과 지구력, 민첩성 요구되는 프리테니스

프리테니스(Freetennis)는 테니스와 탁구가 접목된 경기로 테니스 코트의 1/10 정도 되는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테니스형 뉴스포츠다. 탁구라켓 모양의 라켓을 이용해 탁구의 민첩함과 테니스의 다이내믹한 동작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경기로 스포츠 경험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참가해 즐길 수 있다. 프리테니스 비교적 가벼운 공(23~24g)으로 라켓을 휘두를 때 경험하는 타구의 반동, 타구된 공이 의도했던 방향과 지점으로 비행할 때 느끼는 성취감, 인간의 경쟁 시 긴장감 및 동료 간의 느끼는 협동심은 여타의 스포츠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다. 또한 경기력이 증가하려면 전력을 다해 치고, 달리며, 뛰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프리테니스를 잘 하려면 고른 체력의 바탕 위에 순발력과 지구력 그리고 어떤 공이라도 받아 넘길 수 있는 민첩성이 요구되는 스포츠이기도 하다. 라켓으로 공을 칠 때는 일정한 동작을 취해야 올바른 기술이 발휘되며, 눈과 손 그리고 전신의 협응 동작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당연한 기술을 발휘할 수 있다. 경기력이 증가하면 톱스핀이나 백스핀 등을 사용해 보다 흥미 있는 경기가 가능하며, 그 즐거움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 증진과 체력 강화가 이루어지므로 해마다 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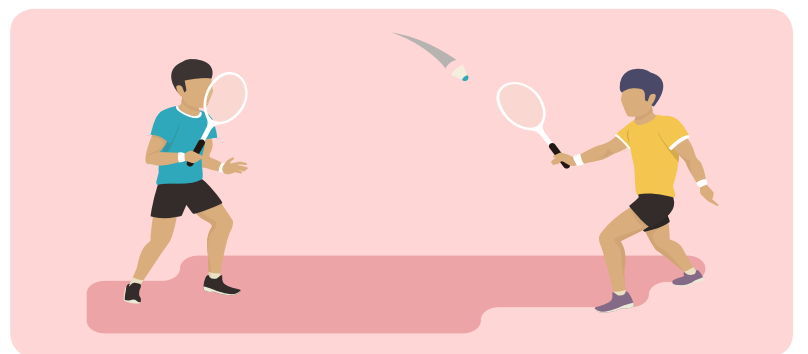


### 02 탁구의 민첩함과 테니스의 역동성 동시 즐겨, 소프트테니스



소프트테니스는 테니스와 탁구가 접목된 네트형 뉴스포츠다.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테니스 규칙에 의해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탁구의 민첩함과 테니스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다. 테니스에 비해 크기가 작고, 샤프트가 짧고, 가벼운 라켓, 가벼운 스폰지 볼, 배드민턴 경기장 크기의 좁은 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해 테니스의 재미와 운동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테니스가 장시간의 기술 연마가 필요한 반면에 소프트테니스는 빠르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짧은 시간에 테니스에서 사용하는 공의 스피드를 익히는 등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목이다.

### 03 민첩성 조정능력 증가에 효과적, 스피드민턴



스피드민턴은 건강과 민첩성 조정능력의 증가에 효과적이며 재미있다. 어린이에게는 높은 동기를 부여하고 배우기 쉽고 룰이 간단하다. 실내와 실외 어느 곳이든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플레이가 가능하다. 경기 레벨에 따른 서로 다른 스피더를 사용하며 네트가 필요 없이 코트 Set-up이 간단하다. 스피드민턴은 교육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완전한 게임으로 능력에 관계없이 경기를 할 수 있다. 내구성 있는 라켓은 짧고 가벼우며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졌다. 스피더는 많은 힘을 요구하지 않으며 먼 거리를 갈 수 있고 각자 다른 속도를 갖고 있다. 공격적 경기를 위한 매치 스피더와 오락적 경기를 위한 편 스피더가 있다. 스피드민턴은 7세 이상 아동에게 권하며 초보자도 2분 정도 연습하면 짧은 랠리 정도는 가능하다. 스피드민턴은 초, 중학생에게 뛰어난 오락적 놀이를 제공하고 고등학생에게는 기분 전환용이거나 정식 시합을 할 수 있는 경기용품이기도 하다.



## 부산체육의 발자취



# 남과 북이 하나 된 평화의 축제,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 01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도시로

21세기를 맞아 일약 동북아시아의 중심을 넘어 세계적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부산에게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은 의미를 던져 주었다. 치열했던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과정에서부터 내재돼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을 불과 한 해 앞둔 2001년 전후에 잇따라 터져 나오므로써 대회 준비에 여념 없는 부산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은 아시아경기대회 총괄 기구인 OCA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간의 마찰이었다. 부산은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 아시아인을 넘어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킴과 동시에 평화의 제전으로서 대회의 의미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역사적 이벤트를 준비해 그 성사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였다.

### 03 아름다운 만남, 뜨거운 열전의 16일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국이 거둔 최종 성적은 금메달 96개, 은메달 80개, 동메달 84개로 중국에 이은 종합순위 2위였다. 16년 전인 86아시아경기대회에서 거둔 금메달 93개, 은메달 55개, 동메달 76개를 앞서는 역대 최고의 성적이었다. 한국이 이처럼 일본과의 경쟁에서 완승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은 비인기 종목들에게 금메달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었다. 정구가 7개 전 종목을 석권하고 세팍타크로가 남자 서클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이변을 연출했다. 펜싱도 금메달 6개를 땀과 사격과 볼링, 요트, 레슬링, 체조 등도 금메달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 02 통일과 평화, 하나의 불이 되다

북한의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는 2002년 시드니올림픽대회 남북한 동시 입장 이후 2년 이상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 체육교류의 물꼬를 다시 트는 결정적인 전기가 됐다. 그동안 남북 스포츠는 축구와 탁구 등 종목에서 단일팀을 이뤄 대회에 나선 적은 있었으나 300여 명이 넘는 북한 선수단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종합 스포츠대회에 참가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비단 체육 분야뿐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교류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음으로써 남북관계를 크게 진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국내의 언론들은 북한의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남북관계가 화합과 평화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 04 한계를 넘어 감동으로, 평등을 향한 도전

2002년 부산에서 개막한 제8회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는 ‘평등을 향한 힘찬 도전’이라는 대회이념을 바탕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장애인의 재활의지 고취 및 사회인식 개선, 장애인 스포츠 발전의 도약대 구축,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 국제 친선과 우호 증진에 기여 등을 대회의 목표로 삼았다. 아-태장애인경기대회는 스포츠를 통해 인간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사회통합이라는 장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스포츠 뉴스



코로나19  
특별성금  
모금 전달식 개최



BNK저축은행  
근대5종 실업팀  
후원 협약식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오늘 4월 29일(수) 오후 1시 30분 부산시청 7층 국제회의실에서 '코로나19 특별성금 모금 전달식'을 통해 체육회 관계자 및 관계단체가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 전액을 기부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회장 장인화)와 BNK저축은행(대표이사 성명환)이 4월 10일(금) 오전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근대5종 여자 실업팀 후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성금모금 단체장인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임원 및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기부처단체장 신정택 부산사회복지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근대5종 경기는 펜싱·수영·승마·사격·크로스컨트리 등 5개 종목을 하루에 모두 진행해 각 종목에서 득점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순위를 정하는 경기이다. BNK저축은행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에게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비인기 종목인 근대5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지원협약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BNK저축은행은 선수단 운영을 위한 경비와 함께 유니폼, 훈련복 등 경기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한다. 조민호 감독과 정민아, 김세희, 이화영 등 3명의 선수로 구성된 근대5종 선수단은 팀 명칭을 'BNK저축은행 근대5종 여자 실업팀'으로 변경하고 앞으로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협약이 근대5종 종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늘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선수단의 땀방울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체육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이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경제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육체적으로 위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체육 관계자로서 단합된 저력을 보여준 모든 기부자(기부단체)에 다시 한 번 감사함을 전하며, 이렇게 모금된 소중한 성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피해 주민들에게 값지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변성완 권한대행은 "평소 부산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부산시체육회가 주도해 임원과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성금을 모금하여 전달해주셔서 감사하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힘을 모아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자"고 전하며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물리적 거리는 멀어지고 있지만, 기부 릴레이가 이어져 마음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전달한 성금 약 8천2백10만원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부산지역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각종 방역 및 위생관리용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동일철강(주) 선보공업(주) 진영푸드(주) 동아플레이팅(주) 일흥테크 (주)대원플러스건설 (주)동원개발

BKE그룹 (주)부산도시가스 (주)에스아이시스템 (주)동신유압 (주)덕재건설 (주)일동 박원욱병원

(주)희창유업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세운철강(주) 성호해운(주) 에프씨인베스트(주) (주)남양산업개발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주)에스컴 (주)명진TSR 대선주조(주) 성창종합건설(주)